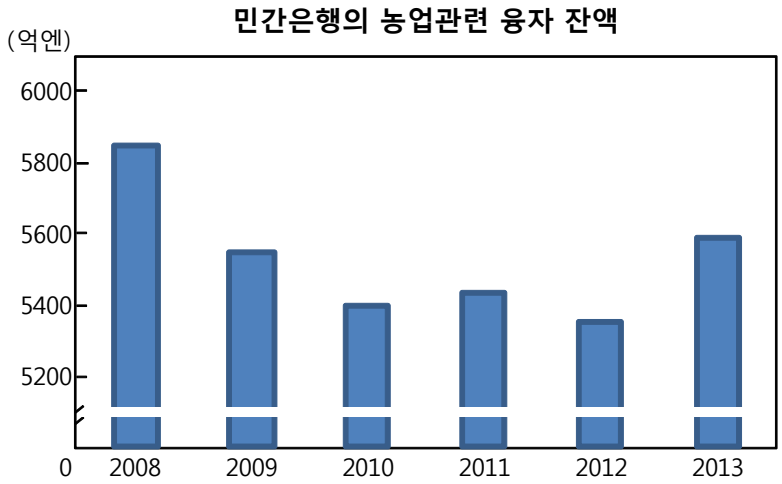
일본단신뉴스 도쿄aT센터	민간은행 농업자금 출자액 300억엔 초과	2014.6.10

◇ 농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금이 움직이기 시작

- 은행의 농업 분야에 대한 융자 잔액은 5년 만에 증가하였음.
- 특히 농가가 가공 · 판매까지를 다루는 육차산업화 지원을 위한 자금 출자액은 민간 만으로도 300억엔을 초과하였음.

◇ 민간은행의 농업분야 융자잔액 증가

- 일본의 농업분야 융자잔고는 5조 2천억엔 규모로서, 민간 금융기관이 약 10%, 나머지를 정부계 금융기관이나 농협(JA)의 금융사업 등이 차지하고 있음
- '13년도의 민간부문의 융자잔액은 약 5,500억엔으로 1년 전에 비해 3.9% 증가했음



◇ 지방은행의 대책

- 민간은행의 농업관련 융자잔액 증가 배경에는 지방은행이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융자에 적극적이기 때문
  예) 홋카이도와 야마나시 소재 은행은 농업경영자 육성학원을 개설하였음
- 또한, 은행이 생산자와 판매처를 연결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
  예) 대형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'13년 12월, 농업법인이나 식품 제조업체, 농기계 농약 관련 기업 약 150개사를 모아 상담회를 개최함
- 하지만 민간은행 융자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비중은 0.1% 정도로 아직 미약함. 기후 등에 좌우되는 리스크가 크며, 현금 수지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망한 성장 분야라 하더라도 융자하기를 주저하는 은행이 많음.

◇ 일본정부의 대응

- 미국에서는 농업부문 융자의 약 40% 정도를 민간상업은행이 차지하고 있음
- 일본에서도 성장 분야로 적극적인 융자를 시도하고 있으나 규모화와 6차산업화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농가는 일부에 불과함
- 일본정부는 6월에 정리하는 신성장 전략으로서 기업의 농업 진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나 농업분야에 민간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.

◆ 시사점

- 일본정부는 금년 6월 발표예정인 농업분야 신성장 전략으로서 기업의 농업법인 출자비중을 현재의 20% 이하에서 50%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으로서 개혁안이 시행될 시 금후 식료품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기업의 농업에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임.
- TPP(환태평양경제협정) 협상타결을 위해 농업분야의 양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농업개혁에 대한 농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돼 정부안대로 민간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.

출처 : 일본경제신문(6.1)